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고성호 요한, 박현성 세라피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김선영 마리아막달레나, 정나미 모니카	
금주 미사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 미사 복사: 이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따	
금주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윤보연 소화 데레사	
다음주 미사해설: 윤보연 소화 데레사, 김태진 하상 바오로	봉 헌 금: \$365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교 무 금: \$180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합 계: \$545
친교실 정리: 2 구역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4월 6일)
성교회 금요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3월 31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흥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3월 30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3/24(토) 저녁 7:30 @ Eagle Heights Community Center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3/24(토) 저녁 6시 @ Park Tower Apt. #615, Sheboygan Ave. (김현우 요셉)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프랑스의 장 지오노라는 작가가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야기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 지대, 옛날 그곳은 숲이 무성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옥에 사로잡힌 무지한 사람들이 나무를 마구 베어 냈습니다. 마침내 숲은 황량한 바람만 부는 폐허의 땅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림받은 그 땅에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이 들어가 도토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도토리를 100 개씩 40년 동안 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도토리 나무들이 자라고 황무지는 점점 아름다운 거대한 숲으로 변해 갔습니다. 메말랐던 땅에 물이 다시 흐르고 고기가 찾아왔으며, 새들도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많은 사람이 그곳을 다시 찾아와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홀로 묵묵히 일한 한 사람의 거룩한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땅에 떨어진 밀알 한 톨에서 마흔 개가량의 씨앗이 맺힙니다. 이렇듯 씨앗 안에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땅에 떨어져 그 자신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의 빵을 주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날마다 순간순간 죽을 때 세상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 바오로

(608) 628-7977

[사순 제 5 주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31,31-34

<제 2 독서> 히브리서 5,7-9

회답송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복 음

환호송

◎ 같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같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요한 복음 12,20-33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래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뵈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의 성가] 시작:121 봉헌:216 성체:502 파견:118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 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3월 24일



전례상식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례적 차이

조학균 신부(예수회, 전례학 박사)

예비신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다. 전례적 측면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자.

첫째, 가톨릭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개신교는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천당과 지옥, 이분법으로 구분짓는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에는 연옥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존재한다. 연옥(煉獄)이란 의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소죄가 정화되는 상태 또는 장소다. 가톨릭 전례에서는 특히 미사 중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천사와 성인들에게 빌어달라고 청원하고, 사도신경 때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고백하며, 식사 후 기도 때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라는 기도를 바친다.

가톨릭교회는 11 월을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위령성월로 정해 놓았다. 오늘날 천주교 용어로는 '위령미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에는 '연미사'나 '죽은 이들의 미사'라는 말로 쓰였다. 위령성월의 신학적 근거는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 교리다.

하느님 앞에서 시간은 무의미한 것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과 살아 있는 이들은 한 공동체의 동일한 구성원이다. 그렇기에 살아 있는 이들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반대로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간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톨릭 미사 중에 거행하는 '성찬례'와 개신교의 '빵 나눔 예식'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가톨릭은 성찬례를 통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고 가르치는 반면 개신교는 주님 현존의 상징적 의미로 거행한다고 할 수 있다.

가톨릭이 매 미사 성찬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예식, 십자가상 제사로 재현하고 있다면 개신교는 단순히 성찬의 식사로 강조하며 기억하고 있다.

또 가톨릭의 성찬례는 축성된 자, 즉 사제로 서품된 사람만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만의 고유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반면 개신교는 안수받은 자가 성찬례를 거행한다.

가톨릭교회는 성사의 유효성을 판가름하는 데 사효성(事效性)을 위주로 하나 그렇다고 해서 인효성(人效性)을 무시하지 않는다. 사효성은 성사의 유효성과 은총이 성사 집전자의 의도나 성덕에 좌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위인 성사적 예절에 내재하는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인효성에 의한 은총의 효력은 성사 집전자의 성덕과 신앙이 수령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사 수령자의 신앙 상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공통점은 성사의 인효성에 의해 발휘되는 은총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하느님께 대한 애절함을 통해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앙은 물론 삶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애절함으로 살아야 한다. 생활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례에 참례한다면, 하느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총을 주실 것이다.

✝공지사항

- 미사 시간 안내 - 3 월 31 일 오후 6 시(주님수난성지주일), 4 월 7 일 오후 6 시(부활전야, Catholic Multicultural Center), 4 월 8 일 오후 2 시(부활 낮, 세례식)
- 재외 투표 안내 - 기간(3 월 28 일~4 월 2 일, 매일오전 8 시~오후 5 시)
장소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재외투표소, 1166 South Elmhurst Road, Mount Prospect, IL, 60056), 준비물(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성당 페이스북 참조
- 다음 주 미사 후 공동체 식사는 취소 되었습니다.
- 다음 주 미사 후 사목 회의가 있겠습니다. 사목위원, 성모위원 및 각 구역장님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은 희생과 봉사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밀알 이야기를 묵상할 때면 항상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께서는 무한한 희생과 인내, 침묵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항상 맛난 음식은 우리에게 양보하시고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음식만 잡수셨습니다. 또 식사 때에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 밥이 모자랄 때면 혼자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서 숟가락 한 그릇으로 대신하셨습니다. 평생을 쉴 틈 없이 고단하게 일하셨던 어머니는 항상 몸뚱이를 입으시고, 짧고 꼬불꼬불한 아줌마 파마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오시면 어머니를 피해 멀리 도망치거나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가슴이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어머니도 여자가기 때문에 멋진 옷을 입고 예쁜 머리를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을 위해 평생 입고 싶은 것, 드시고 싶은 것을 꼭 참고 사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밀알이 우리 자녀들 삶 안에 잘 썩어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어머니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와 신앙생활의 가장 훌륭한 멘토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만났던 하느님의 마음과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를 무한히도 사랑하셨기에 마치 밀알처럼 땅속에서 썩으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라는 복음말씀 역시 밀알처럼 먼저 죽고 썩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밀알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과 재물을 보존하고자 하면 제 아무리 애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즐겁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속하십니다.(요한 12,25-26)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마음이 산란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히려 위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남김 없이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사순 시기도 막바지에 이르러 곧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밀알 하나가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과 희생의 신비를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